

※ 아산재단은 어려운 이웃의 실제생활이 향상되도록 '취약계층자립'과 '중사자 역량강화' 사업 등 사회복지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미흡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독거노인의 정서 지원을 위한 '노노(老老)케어' 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사회복지지원사업의 미담(美談) 3건을 소개합니다.

스물두 살 연두 이야기

글 일하는 학교
(대표 이환래 · 취약계층자립 부문)



일하는학교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연두 등 5명의 청소년이 유아미술 수업시간에 만든 자기 얼굴을 써보고 있다.

아침 8시 30분, 연두(22)는 또 험레벌떡 버스정류장을 향해 언덕길을 뛰어 내려갑니다. 어제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자정 무렵 집에 돌아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어느새 아침입니다.

요즘 연두는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공부한 뒤 오후 3시 30분~6시 30분에 교육원 부설 어린이집에서 서무 겸 보조교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 7시~11시에는 집 근처 파이가게에서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매일 아침 화장도 못하고 만원버스를 향해 달리는 하루가 힘들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하루하루의 끝에는 보육교사가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꾸었지만 어느 순간 포기했던 그날이 이제 정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얼마 전 보육교사 교육원의 아동발달 교육과정에서 '집에서는 얌전하고 착한데, 밖에서는 아이들을 때리고 화를 내며 다니는' 아이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자신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성적이어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어른이 된 지금도 힘든데, 중학교를 다닐 때 연두는 친구들을 때려서 문

제를 만드는 학생이었고, 이런 일들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연두 엄마는 아빠에게 매 맞는 엄마였습니다. 어릴 땐 엄마가 숨겨서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자기 집이 다른 집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어느 날 엄마가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킨 아빠는 그 뒤론 숨기지 않고 엄마를 때렸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연두와 오빠에겐 손을 대지 않았지만, 어린 연두의 마음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하는 아이가 밖에서는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학교'에서 연두를 처음 만난 것은 2014년 봄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스무 살이던 연두는 눈을 맞추지 못했고, 인사도 잘못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2주 정도 다니다 포기했습니다. 2015년 봄에 연두가 다시 왔습니다. 여전히 인사하기를 어려워했지만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이번엔 한 달 정도 버티다 그만두었습니다.

2015년 가을, 연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은 질문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잘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하겠다, 꼭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

지 분야로 나아갈 꿈을 꾸는 다른 학교밖 참여자들과 함께 석 달이 넘는 기초교육 및 활동기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했고, 다시 두 달간의 어린이집 인턴십도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보육교사 교육원을 다니며 인턴을 했던 교육원 부설 어린이집에서 7개월째 보조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불온한’ 아이는 없다

“꿈 때문이에요.”

일하는학교의 문을 반복해서 두드린 이유를 물었을 때 연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015년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맨땅에 헤딩 프로젝트’ 중 ‘키득키득 아동복지’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된 후엔 이전과는 다르게 꼭 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기도 했고,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잘 모르는 자신의 눈으로 봐도 달라 보였습니다.

사실, 아산재단 후원으로 시작한 ‘맨땅에 헤딩’은 일하는학교에서 진행한 어떤 ‘길찾기 프로젝트’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강사들을 모였고, 다양한 체험과 탐방을 다녔으며, 배를 굶고 오는 참여자들을 위해 따뜻한 간식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진행과정 중에 이루어진 몇 차례의 평가에서 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대학교 프로그램’ 같은 이 과정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본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하는학교에서의 모든 교육과 활동이 무료였기 때문에 교육비나 활동비로 인한 걱정이나 불편함 없이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후 진로 활동(자격증 교육 같은 심화교육 과정과 취업)으로 나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는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와 컴퓨터, 인권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학교는 연두와 같은 취약계층, 학교밖, 비진학 청소년·청년들의 진로 찾기를 돕고, 이들이 마을과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는 곳입니다. 일하는학교에서는 흔히 동네의 ‘불온한’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학교·공부를



보육교사를 꿈꾸는 일하는학교 수강생들이 성남시청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청년들이 만드는 어린이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참여했다.

‘때려치운’ 청소년·청년들이 스스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배운 것을 토대로 마을에서 작고 소소한 활동을 하고, 마을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사회로 진입하며 자립을 일구어 갑니다. 가끔 마을 활동이나 인턴십을 통해 연두 같은 청소년·청년들을 만난 어른들은 깜짝 놀랍니다. 애들이 아주 착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어떤 생각과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이런 만남을 갖지 못한 많은 어른들은.

일하는학교가 ‘착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일’을 합니다. 일을 ‘잘’ 합니다. 누구도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돈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삶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도 동네의 ‘불온한’ 아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학교는 태어나면서 이미 덜 가지고 태어난 청소년·청년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당연해진 사회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

※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는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5년~2017년 학교밖 청소년 대상의 직업교육 및 자립의지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내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행복이라면”

글 속초시노인복지관
(대표 위성호 · 노노케어 부문)



속초시노인복지관의 '노노(老老)케어' 봉사자 발대식.

따르릉 따르릉...

“어머님 식사 하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있고 말고요. 호호호.”

강원도 속초시노인복지관의 김정자(73) 전화상담 봉사자와 어느덧 1년 가까이 전화통화를 해온 어머니는 군복무 중인 손자가 휴가를 나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갔다고 기분이 좋으셔서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잘 하셨어요, 어머님. 그 손자에게 아주 많이 고맙다고 전해 주세요.” 김정자 봉사자는 자신의 손자가 아니지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어머니와 한마음입니다.

“봉사자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김정자 봉사자가 통화한 어머니는 연세가 83세로 혼자 사실 뿐 아니라 시각장애 2급이십니다. 평소 조용하고 아기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데, 김정자 봉사자가 어머니 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 놀랐을 정도

로 모습이 무척 곱다고 하십니다.

김정자 봉사자가 다시 다른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신호가 울리고, 상대방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하는 불안감도 엄습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통화가 됩니다.

안부인사로 시작해서 안부인사로 끝나는 전화지만, 통화를 마칠 때는 살아있음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 전화상담 봉사자는 이처럼 1주일에 두세 번씩 속초시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두 분에게 안부전화를 걸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분들이 살아온 다양한 이야기와 사연을 들어주는 전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거의 담을 쌓고 지내온 독거노인들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자주 전화하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말문을 트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보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고, 그러다 보면 30분이 훌쩍 지나

간다고 하십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은 전화가 늦으면 기다리고 궁금해 하세요. 이런 활동 기회를 제공해준 아산재단과 복지관이 무척 고맙습니다”며 매번 감사인사를 건네지만, 사실은 저희 복지관이 진심을 담아 활동하시는 봉사자들에게 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노노(老老)케어 사업이란 아산재단이 2015년부터 기획해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건강한 노인 자원봉사자가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주 2회 이상 전화를 걸어 안부 확인과 말벗 봉사를 합니다. 2015년에는 전국 12개 노인복지관을 선정해 봉사자 330여 명이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 1천여 명의 전화 말벗이 됐고, 2016년에는 28개 기관의 봉사자 690여 명이 독거노인 1,600여 명의 친구가 돼주고 있습니다.

※ 속초시노인복지관은 2015년~2017년 20명의 봉사자가 독거노인 40명의 말벗이 돼주고 안부를 챙기는 '노노(老老)케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의자

글 캠프힐마을

(대표 김은영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부문)



재육(가운데)이가 동료 학생이 완성품을 들어 보이는 가운데 의자를 만든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

여기 세상에 하나뿐인 의자가 있습니다. 푹푹푹푹 망치질을 하고, 쓱쓱쓱쓱 사포질하기를 6개월여, 이제 막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열일곱 살 재육이는 학교가 끝나면 푹푹푹푹 방과후작업장에서 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캠프힐마을의 'Learning for Life' 프로그램 중 방과후작업장을 통해 재육이는 매일 2시간 동안 수공 및 목공 작업을 합니다.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드릴도 사용하지요. 작업이 끝나면 뒷마무리 청소도 하고, 작업 일지도 씁니다.

재육이는 이 의자를 만들기 전에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4년째 함께 하고 있는 담임선생님!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쑥스러워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목공 작업 속에 담아보고 싶었지요.

목공 선생님은 의자를 만들기 전에 “그럼 나무하러 가자”면서 아이들을 뒷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뒷산에서 나무 베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큰 나무를 끌고 내려와 다듬고 자르며 재육이는 마음속에 의자의 모습을, 의자를 선물 받을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저 산의 나무가 이곳 목공실로 와서 맨살을 드러내고, 의자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재육이는 매일 2시간, 6개월여의 긴 시간 동안 작업하며 함께했습니다. 한 가지 작업에 몰두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아이, ‘내가 정말 잘 하는 게 있을까?’ 두려움이 많았던 아이, 뇌병변으로 불편한 왼손을 주머니에 꼭 감추던 날들이 많던 재육이는 슈타이너학교에서 초등과정을 공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아이, 도구를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등과정에 들어가자 학교 교육만으론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더 만들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마침 아산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작업장이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을 만들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손으로 푹푹푹푹 만들어가며,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곁에서 격려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어서 지난 1년간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이란 주변의 격려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때 생긴다는 것을 재육이를 보며 느낍니다.

재육이가 만든 의자는 꿈과 사랑을 담아 담임선생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낮은 스톨(stool)이라 그 의자에 앉으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올려다봐야 한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선생님과 재육이를 우러러볼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나는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봐야지!’ 하며 용기를 낼 것입니다. 그 의자 위에서 아이들의 꿈은 더욱 성장해 갑니다. 🌱

※ 2015년부터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사업을 진행하는 캠프힐마을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실현이 목표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